

“불법에 경제침체 해법 있다”

유필화교수 ‘부처에게서 배우는...’ 곧 출간

‘8正道’ 경영학적 해석 실천덕목 정립 서구식이론 한계 지적 ‘인간중심’ 강조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은 무궁무진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 분야에도 적용되며, 기업 경영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제침체현상도 경전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기업 경영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독특한 책이 이달 말 출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성공관대 경성대학 경영학부 유필화교수(43)가 2년여의 각고 끝에 선보인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한인출판사)>라는 제목의 경영서가 바로 그것.

“21세기의 새 경영이념은 인간중심의 전통동양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최근

경영의 흐름을 간파, 이 책은 서양적인 경영패러다임의 한계에 부딪힌 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유교수는 “오래전에 <예수의 오메가 리더십-최고 경영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불교의 경전에서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경영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경영적 측면에서 해석한 책을 한권 써야겠다 생각하던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라며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눈을 안으로 돌리자 △경영을 보는 올바른 시각 △증은 기업문화



는 기업의 무한한 활력소 △붓다가 가르치는 경영의 지혜 △사람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지혜로운 기업경영의 길 등 총 7개 부분으로 나눠 각 경전의 주요부분을 인용하며 불교적인 경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유교수는 “양극단을 떠나려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은 기업 또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시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훌륭한 결정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이 ‘중도의 경영학’을 실천한다면 부실운영이든가 부도같은 실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급속하게 성장하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기업의 생리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과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제시한 여덟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경영학적으로 해석해 놓아 경영자들이 지켜야 하는 실천덕목이라고 소개한다. 유교수는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해질수록 바른 기업경영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영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제 바깥이 아닌 안으로 눈을 돌려 우리에게 맞는 경영모델을 찾아야 한국 기업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한 유필화교수는 “불교에서 이상적인 경영을 찾고자 하는 나의 시도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4와 경전



유마경



운 계
(원효연구원 이사장)

<유마경>은 구체적으로 <유마일 소설경>이라 한다. ‘유마일’은 인도사람 이름이고 ‘소설’은 ‘말한 것’이란 뜻이고 ‘경’은 성인의 말씀이란 뜻이다. 나는 몇년전에 <유마경강의>라는 책을 썼고 경전공부모임에서 유마경을 많이 강의하고 있다. 구마라집의 한문본을 제일로 치는데 그것을 저본(底本)으로 했다.

불교의 경전이 대부분 부처님이나 보살의 말인데 이 경은 유마일 거사 즉 세속에 있는 분이 말한 것이기에 다른 경과는 취향을 달리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도량 하면 사찰을 말하는데 이 경에서는 ‘정직한 마음이 도량(真心是道場), 자비한 마음이 도량(慈悲心是道場), 보리의 마음이 도량(菩提心是道場) 이라 한다. 또한 재가와 출가가 평등하고 진(眞)과 속(俗)이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사상 등 불이사상(不二思想)이 전편을 흐르고 있는 대승경전의 대표적 경전이다.

둘째 단계는 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수도하게 된 동기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인 생로병사를 해결하려는 중생도에 있었다. 그러므로 불교의 근본 사상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것이지 특수 계층만을 위함은 아니었다.

여기에 부처님이나 보살이 말씀한 것은 물론 속세에 있는 거사의 말까지 경(經)으로 취급한 것이니 이 경은 출가중심의 불교에서 중생중심의 불교, 즉 대승불교의 제창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기에 이 경은 각계 각층에서 다 좋아해서 화엄학에서는 이 경이 화엄학의 사상을 나타냈다 하고 삼론학에서는 삼론의 교리에 가장 맞는다 하고 천태학에서는 천태의 교리에, 선종에서는 선종에 가장 맞는다 하여 어느 종지가든지 자기 파에 맞다고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경과 관련된 두 사람

‘유마거사 삶’ 중생에겐 실천적 모델 불이평등 실상 연극보듯 쉽게 이해

주인공 유마거사는 우리 중생들과 같은 평범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불이사상의 체현자이고 생활과 불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보살의 화신이다.

특히 문수보살과의 대화중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병이 없어도 아프게 되는 것처럼 보살은 병이 없어도 중생이 앓기 때문에 보살도 앓는다”는 경구는 이 경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말이다. 유마거사는 우리 삶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영원한 인격적 사표이고 <유마경>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틱한 연극을 보듯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강의하기도 재미있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 어느 경전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공부하는 것 같다.

불교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었지만 나는 대략 두가지에서 주목한다.

첫째 단계는 불교의 교주(教主)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생의 괴로움인 생로병사의 해결을 위하여 왕궁을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 6년간 고행 수도하신 결과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다. 그러기에 초기 불교의 교단은 출가한 분이 중심이 되었으니 이는 불교가 말하는 사부대중 가운데 비구승단이 첫째 계급인 것이 그것이다.

의 얘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중국 송나라에 장상영이라는 대선이 있었다. 그는 본래 유학자였으나 당시 종조가 불교를 좋지 못하게 보고 유교를 진흥하려는 때였기 때문에 그는 ‘무불론(無佛論)’을 지어 불교를 공격하려고 생각해 집에만 가만 책상머리에 앉아 집필에 몰두했다. 이를 본 그의 아내가 무엇을 그리 열심히 쓰느냐고 묻자 장상영은 “요사이 중들이 너무 잘난 체 하기에 내가 무불론을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가 “부처가 이미 없다면 구태여 무불론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학자이니 직접 불경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모순된 점을 들어 논리적으로 공박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게 여긴 그는 무불론의 원고를 중지하고 불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유마경>에서 불교의 심오한 뜻에 감명을 받아 무불론을 쓰던 뜻을 돌려 ‘호법론(護法論)’을 썼다고 한다.

또 중국에 왕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마경>을 보고 너무 감심한 나머지 자기의 이름을 유마원거사에서 ‘마일’을 따 왕마원이라고 바꾸었다 한다. 이렇게 <유마경>을 읽고 감명받은 이야기는 고금을 통해 부지기수다.

작년 국민독서 9·1권

독서세물결운동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77.2%가 1권이상 책을 보았고, 1년 평균 9.1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환산하면 0.8권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지난 한해 한달에 한권도 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95년보다 0.5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성인 1천2백명, 학생 2천7백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국민독서환경 변화 후 이와 독서 생활 실태의 문제점을

출판소식

일고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부산불교 인명록 발간

부산불교계의 모든 정보를 담은 <부산불교계 인명록(불심홍법원 판)>이 발간됐다. 스님과 재가불자, 불교단체현황 등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부산불교계의 사암과 신도단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밖에 전국 종교법인 현황, 불교관련업체, 생활안내 전화번호 등을 부록으로 담아 일상에서 활용하기 쉽게 했다.

(051)818-4769

‘서평문화’ 25집 출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출판문화의 발전과 양서 권장 사업의 일환으로 펴내고 있는 계간지 <서평문화(제25집)>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일상인들이 놓치기 쉬운 삶의 추억을 미세한 감성으로 생생히 그린 정채봉씨의 <좋은 예감(생터)>과 김춘수씨의 <들림, 도스도에프스키(민음사)>에 대한 서평 등 문학, 철학, 교양 등 11개 분야 29쪽에 대한 서평이 수록돼 있다.

또 제 25차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을 간략한 내용설명과 함께 부록으로 담았다.

명상통한 정신질환 치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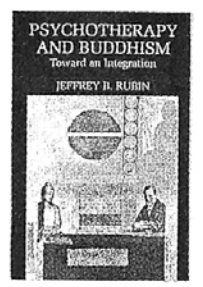
혜혜 출판

정신요법과 불교

명상과 정신요법을 병행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면 상호보완적 치료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지적한 연구서 <정신요법과 불교(Psychotherapy and Buddhism) 프리넘 판>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심리학자인 제프리 B. 러빈 박사가 펴낸 이 책은 정신질환의 원인과 근원적 치료법을 불교와 정신분석학의 비교를 통해 살피고 있다.

러빈 박사는 “정신질환의 치료는 자아에 대한 이해와 마음의 안정이 선행조건”이



라며 “미국 정신의학계는 명상과 정신요법을 실제 치료에 응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http://www.plenum.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불교인문	포 교 원	조계출판사
3	그까지 살았으면 어때	화 립	여시아문
4	힘든세상 떠나 던지	효 립	가 서 원
5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6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7	화엄경 강의	무 비	불 광
8	유식입문	대개원재도	시공사
9	그 마음을 버려라	김 재 응	용 화
10	도술원에서 만났다	장 순 용	세 계 사

구입문의: (02)737-0695

새로 나온 책

▲**불교철학입문**=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풀음에 불교의 본질을 오늘날의 우리현실에 맞춰 현대적으로 풀이한 입문서. 불교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해설과 더불어 불교의 전체적 조감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경서원 7천5백원)

▲**모든 이에게 이의와 행복을 주는 책**=불교경전에서 32편의 이야기를 가려뽑아 믿음의 장, 알아가지는 장, 생활로 옮기는 장, 행복을 이루는 장으로 구성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정우 4천원)

▲**연화의식집**=불교의 모든 의식에 대한 설명과 방법을 담았다. 헌공, 축원, 다비, 시식, 독



송, 범어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 불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수레 1만3천원)

▲**어린이의 인간학**=교육과정과 화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어린이 인간학의 필요성을 모색한 책. 어린이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질과 과제를 재고하려 하는 어린이의 인간학이 필요한 이유를 역사적, 학문적으로 변증하고 있다. (아름다운세상, 1만5천원)

▲**청소년 불교마당**=군중법사를 역임하고 종립 해동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육태씨가 감수



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필했다. 불교의 방대한 경전과 가르침을 쉽게 풀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불심홍법원 비매품)

▲**삼세인과 그리고 율화**=삼세인과(경)를 비롯해 인과법을 깨달을 수 있는 8편의 글과 법회식순을 함께 실었다. 인과의 근본 원리를 깊이 깨달아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하루하루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자는 지언이 김진택 거사의 서언이 담겨있다. (선우 2천5백원)

운수일기

雲水日記

著·文 佐藤義英
譯 釋圓然

대흥기획

“求道の 길”

雲水日記는 日本의 한 절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永遠의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역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명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과정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역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영서점 철찬리 판매중!!

개침의소리
전화: (02)444-3575